



전국 최초 '청년기업가정신 로드쇼' 열려

20억8천만원 지원받아 청년창업가 발굴·육성기로

지난 9일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년기업가정신 로드쇼'가 펼쳐졌다. 이번 로드쇼는 산학관연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우리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창업선도 대학에 연이어 펼쳐진다. 로드쇼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최로 열리며 우리대학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이 공동주관한다. 또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벤처기업가협회 등에서 후원한다.

'기업가정신 특강, 창업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별 특색을 나타내었다. 이날 김동선 중소

기업청장,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양해술 창업선도대학 협의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 36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대학은 중기청으로부터 20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우수예비창업자를 발굴, 창업준비 공간과 기자재, 맞춤형 멘토링 등을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했거나 창업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40명씩 창업특기생으로 뽑아 청년기업가로 키워나가고, 2012년까지 200명의 청년기업인을 양성하겠다는 '창업선도대학 운영비전'을 발표하였다.

김동선 청장(중소기업청)은 "먼저 창업에

대한 꿈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벤처 창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이 꿈을 펼쳐 용기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식 총장은 "청년 벤처 CEO 등의 생생한 경험과 체험이 창업을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주대학교가 청년창업의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청년창업의 메카가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룡 기자

■지·면·안·내■

- 2~4 News
3면 2011 시민감사추천장사진
참살이 실습터 사업 10억지원
제1회 CJ-JJ 한식수퍼스타 경연대회
국제미래학포럼 미래학자 제롬 초청
2011 열린 인문학강좌
예술치료학과 작품전시회
관광경영,문화자원답사
- 5 Opinion
독자투고
- 6 Culture
기자수첩, 문화산책
-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사설
- 8~9 Jump On
21C 아는 만큼 보인다
- 10 People
전주교대 유망한 총장
-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도쿠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마흔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은 전주대학교를 위한 기도문

1964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이곳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4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주대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전주대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전주대가 외형적인 틀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선구자적 기독교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과 생명을 살리는 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우리 전주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주대 인재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달라지고

세계가 변화되는 핵심적인 기독교대학의 역할을
전주대가 담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쁘고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전주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숙교수(신학대학원장)

'참살이 실습터 사업' 10억지원 받기로

호남 유일 선정, 외식산업학과주관, 6월 1일부터 교육생모집



참살이 실습터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길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외식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및 전문 인력 등을 보유한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역별로 1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우리대학은 전주비전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민계홍 교수는 "그동안 외식 산업학과는 외식서비스 시장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커피 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에, 푸드 코디네이션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훌륭한 외식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각 과정별 교육생은 6월 1일부터 모집한다. (문의처: 외식 산업학과 실습실 ☎ 220-2980)

/ 권희망 기자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참살이 실습터' 지정 사업(총괄 민계홍 교수)에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향후 2

년간 10억을 지원받는다. '참살이 실습터 사업'은 커피 바리스타, 소믈리에, 푸드코디네이터, 웨딩플래너, 네일아티스트 등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실습

제1회 CJ-JJ 한식수퍼스타 경연대회, 31일까지 접수

조리관련 고교.대학생 6월 11일 본교에서 솜씨자랑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단장 한복진)이 제 1회 CJ-JJ한식수퍼스타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전국 조리관련 고

등학교 2,3학년과 조리관련학과 대학 재학생으로 홈페이지(<http://food.jj.ac.kr>)를 통해 접수한다.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식 메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본 경연은 우리대학 창조관 한식조리학과 실습동에서 6월 11일 펼쳐진다.

한복진 교수는 "전주대와 한국의 최대 식품회사인 CJ그룹과 산학협력을 통해 식품, 외식 산업계에 필요한 한식전문인력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정

이남식 총장 국제미래학회 회장취임



이남식 총장이 5월 9일 오후 6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국제미래학회 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영길 초대 회장(한동대 총장)에 이어 제2대 회장에 취임한

이회장은 미래학자 허먼 칸의 수제자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Dr. Jerome Clayton GLENN)박사와 함께 공동회장을 맡았다.

이남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민첩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미래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자'고 인사하였다.



양희산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부)는 5월 1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에서 제23대 한국보험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양교수는 국회 보험제도개선기획단 부위원장, 미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객원교수, 영 CII 한국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전문인 시험 출제위원,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 보험개발원 연구자문위원, 손해사정학회 회장 등 역임하였으며,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김진아 교수(예술치료학과)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음악치료학술지(SCCI

저널)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위촉받아 2015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교수는 앞으로 자폐증, 아동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분야의 논문 초조리부, 리뷰배정, 논문 선정 및 출판결정, 특별지(special issue) 출판의 편집장 역할을 하게 되며, 학술지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된다.



중앙도서관 백명숙 실장과 유기석 과장은 지난 4월 22일 우석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 14차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는 외국학술지 공동 구독 및 상호 간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1998년 발족했으며, 전북도내 9개 대학이 참여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총장의 진행으로 김광휘(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영숙(유엔미래포럼대표), 김창석(서울시립대)교수, 정철모(새만금연구소장, 전주대)교수가 4주제를 가지고 10분씩 토론을 하고 있다.

"단세포 Algae, 새만금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국제 미래학 포럼' 미래학자 제롬 초청

지난 9일 온누리홀에서 스타센터 개관 기념으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Dr. Jerome Clayton GLENN) 회장을 초청하여 국제미래학 학술포럼을 가졌다. 제롬 글렌 회장(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Algae'를 강조하였다. "'Algae'란 60%의 프로틴으로 인간 몸전체를 정화시키듯 환경을 정화 시킨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있었던 단세포이

기 때문에 탄소포집과 폐수정화의 장점으로 암 예방과 치매에 방으로도 효과가 탁월하다. 'Algae'를 폐수처리장에 넣으면 햇빛을 받고 크게 된다. 이렇게 큰 'Algae'는 폐수를 깨끗이 정화 시키고 새우를 키우는 장으로 가면 새우가 잡아먹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며 폐수가 많은 새만금에 꼭 필요한 'Algae'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 전유정 기자

도서관 찾는 학생 10배로 늘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하루 3백명에서 3천명으로 10배 늘었다. 컨벤션홀과 정보통신원, 학생서비스센터, 취업지원센터, 푸드코트, 체육시설까지 갖춘 멀티플렉스

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자주 찾는 강은미(대체건강관리학부 1)학우는 "공강 시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과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미디어밸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말했다.

스타센터는 기존의 멀리 있던 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첨단 기기가 더해진 학생들의 편의함을 추구하고 있다.

/ 박지은 수습기자



사진으로 보는 < 2011 시민감사축제 >



개교 47주년과 스타센터 개관식을 기념하는 <2011 시민감사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상담카페, 미래를 디자인하는 슈퍼스타, 조선왕조실록 과학지, 길 사진 및 영상 전시전, 먹거리 나눔, 음식 체험, JJ아름다운 체형관리, 발효과학 체험전, 매직풍선 만들기, 생활 속의 수학 탐구 디자인 부스의 시민과 학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주요 부스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사랑과 희망의 책 나르기” 행사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사랑과 희망의 책 나르기’ 행사를 재학생 1004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는 도서관 이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구 중앙도서관부터 스타센터 서가까지 거리 1,004m(천사미터)를 학생들이 인간 도미노를 형성하여 책을 전달했다.

개교기념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학의 역사적 서적(앨범,교지 등) 47권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

/박선화 기자





▲인문학 강좌에 초청된 강사들 - 왼쪽부터 오항녕 교수, 이남식 총장, 박건용 감독, 김용택 시인

‘2011 열린 인문학강좌’ - 삶과 인문학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인문대학(학장 김승중)에서는 전주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1 열린 인문학강좌’를 개설했다.

지난 1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오항녕 교수의 ‘문화, 인간의 무늬’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5월 18일 오후 4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는 이남식 총장의 ‘고전과 삶’을, 25일에 오후 4시

jj아트홀에서는 영화 ‘태풍’, ‘킹콩을 들다’를 만든 박건용 영화감독(청운대 교수)이 ‘영화와 삶’을 강연한다.

6월 1일 오후 4시 jj아트홀에서는 심진강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시와 삶’을 이야기한다.

인문대학측은 이 강좌를 통해 전주시민, 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이 증진되고, 전주대와 지역사회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중 학장은 “인문학은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학문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은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 및 균형 감각과 합리성 등을 골고루 갖추어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 ‘열린 인문학강좌’를 통해 지역 사회를 더 멋지게 만들고 전주시민과 전주지역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수습기자

‘성장과 나눔’ 예술치료학과 작품 전시회 성황

예술치료학과(학과장 김진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 경원동에 위치한 루이엘 모자박물관에서 ‘성장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예술치료학우 전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예술치료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박보람 교수(예술치료학과)는 “과 특성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 단단해지는 기회인 이번 전시회는 남다르다.”며 “특히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사진)은 77조각을 각자 다르게 해석한

작품으로 하나로 합쳤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지는 작품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신이나(2) 학우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대해 더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



▲박보람 교수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 알리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

다. 내년부터 실습을 나가는데, 내담자를 대할때 내면적으로 어

려움이 없게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전유정 기자

관광경영 경남일원으로 문화자원답사

관광경영전공(주임교수 류임평) 4학년 학우들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동안 전국 관광지의 현장지식을 갖추고자 경상남도 일대로 국내 문화자원답사에 다녀왔다.

관광경영전공은 관광관련 실무능력과 현장정보 수집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 학기 현지답사를 다녀온다. 현지답사는 사회의 각 기관이나 현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를 길러내는 관광경영전공 교육목표의 한부분이다. 이번 답사는 경상남도지역인 합천, 진주, 남해, 고성, 통영, 거제의 문화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답사활동을 했다.

/권희망 기자

패션산업 ‘패션기업 임직원 초청 간담회’

문화관광학부(학부장 박현정) 패션산업전공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2011 패션기업 임직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향후 산업체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전공과의 산학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 인해 학우들의 실무능력 함양 및 취업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중 기자

신학강좌 기독교연구소 주관

지난 11일 16시 우리대학 대학교회에서 기독교연구소 주관하에 신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이신형 교수(교회실용교육학과)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한국현대소설에서 바라본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광룡 기자

하계 해외 어학연수 파견학생 선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19일 신청마감

국제교육교류원에서 2011학년도 하계 방학 중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으로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프랑스(12명 선발)는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부르고뉴대학(3학점 인정)에 가고, 인솔교수는 유기선교수이다. 독일(12명 선발)은 7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하인리히 하이네대학(뒤셀도르프, 3학

점 인정)에 가고 인솔교수는 신용호 교수이다.

일본(15명 선발)은 7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 구루메대학(2학점 인정)에 가며 인솔교수는 오타니 텃페이이다.

중국(15명 선발)은 7~8월 중으로(3~4주) 소호학원(3학점 인정)에 간다.

선발전형은 20일 2시부터 6시까지 국가별로 실시한다. (문의처 : ☎ 063-220-2316) /권희망 기자

사회 복지학과 job master plan 특강

사회복지 학과에서 오는 18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까지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들 job master plan을 실시한다.

특강은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인 진입을 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사회복지 각 분야별 취업

전략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학생본인이 작성해온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토대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슈퍼 비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현장소식 및 취업 관련 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지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학생지원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 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6일으로 교내 근로의 경우 시급이 6,000원, 교외근로의 경우 8,000원이다. (문의처 : 학생지원실 ☎ 063-220-2982)

/이대중 기자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호텔경영학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인 영어면접.

호텔경영, 진로탐색시간에 모의 영어면접

기본적인 영어 면접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4일 진로탐색 시간에 실전 모의 영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영어면접은 지역혁신관 호텔실습실 105호에서 호텔경영학 교수 5명과 2학년부부터 4학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5:1면접 형태로 진행하였다.

영어면접은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숙달정도를 확인하고 이 자료를 국내 외 취업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

번 면접은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인사부장이 직접 5월 말경 방문할 예정이어서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영어면접자를 선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진로탐색 시간에 하는 영어면접은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호텔경영학과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권희망 기자

독자특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



김승완
(상담학 3)

나는 전주대학교에서 5학기 째를 보내고 있지만 그 동안에 학교와 교수님들과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우들을 몇 명 만나지 못했다. 그에 반해 보다 좋다고 여겨지는 대학교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한을 가진 학우들은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많은 학우들이 자신에게 열려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알차게 채워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지금, 꿈을 낮

추고 거기에 맞추어서 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왜 자신의 실패를 예견하는가!

난 전북대 기계공학과에서 6학기 째를 다니다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전주대학교 상담학과로 입학했다. 진로에 대해 3년간 부모님을 설득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학교를 돌아볼 기회도 있었다. 기계공학과와 과대표 시절에는 전북대 출신으로 대기업 5곳에서 동시에 합격통지를 받은 학우와 진로에 대해서 논박을 벌인 적도 있다. 그렇게 무려 4년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얻은 것은 비교적 분명한 나의 꿈이고, 배운 것은 학교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종합실험실이지 꿈,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쉽게 말해 노력하기에 따라 서울대생이나 지방대생이나 비슷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전기발판 위의 강아지처럼 학교의 이름에 매어 갇혀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혹은 의심적지만 보이는 이미지 속에 빠져 그저 받아들이는 것 즉, 학교의 이름과 출세를 관계짓는 사회에 도전해 볼 '슈퍼스타 표 돈키호테'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 또한 돈키호테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돈키호테가 되느냐고 묻는다면 세계 우수 대학의 학생들처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대 학생이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대 학생이어서 성공 못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부량이나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수님께 진로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을 알기 위해 카운슬링센터의 여러 서비스도 받고, 슈퍼스타 인증서를 위해 CP, SP, 학과 행사와 학과관련 봉사활동 등을 찾아서 함께 활동하라고 말이다.

독자특고

경남, 나의 마지막 답사 이야기



고은정
(관광경영 4)

우리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일년에 2번 답사를 간다. 1학기는 국내답사를 가고, 2학기는 해외로 답사를 간다. 나는 4학년이지만 국내답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국내답사는 2박3일 경상남도도 갔다 왔다. 첫째 날은 합천에 영상테마파크, 진주의 진주성, 남해의 독일마을, 해오름마을, 다랭이 마을을 갔고, 둘째 날은 고성공룡박물관, 거제도의 외도와 해금강, 신선대와 바람의 언덕, 학동몽돌해변, 포포수용소에 갔다. 셋째 날은 토영의 세병관, 동피리 마을, 해저터널을 갔다가 다시 전주대학교로 돌아왔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답사 장소는 거제도에 있는 외도다.

외도는 거제시의 해금강을 따라 약 4km 남동쪽에 위치한 거제도 섬이다. 외도는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서구식으로 가꾸어진 식물원이다. 외도는 1969년 이창호와 그의 아내 최호숙 부부가 거주를 하면서 하나씩 가꾸었으며, TV 드라마와 광고 등의 배경지로 유명해졌다. 이창호와 아내 최호숙 부부가 처음 외도에 왔을 때는 바위만 무성한 버려진 황폐한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었다. 외도는 육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전기시설도 통신시설도 없었다. 이 부부는 1969년부터 1973년 까지 섬 전체를 사들이게 된다. 1970년대 초부터 이 섬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감귤나무 3천 그루와 편백 방풍림 8천 그루를 심어 놓고 농장을 조성하였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농장 대신 식물원을 구상하여 30년 넘게 가꾸면서 다듬어졌다. 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오르막길이 너무 심하고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서 다른 식물원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올라가서 보니 예쁜 꽃과 나무들로 덮여있고, 바다도 함께 볼 수 있어서 꼭 동화 속

에 있는 기분이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꾸준히 외도는 변하고 있다. 배 선장님이 말씀하시길 "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고 또 일부는 외도를 가꾸는데 쓰인다. 그리고 외도는 계속해서 가꾸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외도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좋지만 또 1년 후에 다시 외도를 찾으면 더 아름답고 색다르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다.

답사는 그냥 여행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국내답사를 통해서 전공에 관한 지식도 많이 배우고, 시야도 넓어져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지식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사는 우리 과에 너무나 필요하다. 아쉬운 점은 답사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답사에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답사가 의무가 되어서 과 전체 학생들이 답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

정보통신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스타센터 오픈행사로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공모전을 실시 4편의 이야기를 당선작으로 발표한다.

당선자 명단

- 대상 : 경은정(문헌정보학전공 3)
- 우수상1 : 이현경(국어교육과 3)
- 우수상2 : 임아름(컴퓨터공학과 1)
- 우수상3 : 김진경(한식조리학과 1)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스타센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상 경은정 (문헌정보학전공 3)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

스타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QR코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해하면서 지시에 따라 스타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쫓겨 가야할 길로만 정신없이 속속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스타센터를 둘러보니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우선 스타센터는 도서관이 중심!

말 그대로 스타센터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강의실, 카페, IT센터 등이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최대화에 유의하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스타센터는 다목적 복합관!

스타센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함을 느끼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심심할 땐 영화감상이 가능하며, 과제물이나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면 도서관 안이나 IT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스타센터의 신기한 외향!

스타센터를 둘러보다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건물의 특이한 모양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공간들마다 모양이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며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구름다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센터의 건물모양이 신기하면서도 처음엔 길을 헤맸지만 구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동성이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용한 다목적 복합관인 스타센터가 우리 전주대학교에 건립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스타센터의 이용자 중의 한 명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 매우 기뻐다. 우리 모두 스타센터에 대해 더 잘 알고 알차게 이용해요~^^

우수상 이현경 (국어교육과 3)

QR코드를 찾아 스타센터 안을 둘러보며(사실은 헤매며...-_-;) 다녀보니, 정말 구석구석 우리 학교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실감이 났다. 생전 처음 4층에 올라가 정보통신기계실에도 기웃거리 보고서야 나를 학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자부했던 나도 사실은 '겉만 훑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 5군데의 미션 장소를 둘러보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도서관이 얼마나 스마트해질 수 있는지, 복합 문화 건물인 스타센터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하였는지 한 눈에 들어왔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인 이유는 전주대학교의 스타센터가 지역사회와 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실감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재학생만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 아동들이 영어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 동화책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영어 도서관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내부를 둘러보며 책도 살펴봐왔는데, 영어에 약한(어쩌면 원수기간인...) 나도 탐나는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낮은 책상과 책장이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져있어 더욱 마음에 들었던 장소였다. 이벤트는 보물찾기하듯 즐거웠어요.

기자/수/첩

“우리 대학의 주인공은 나”



진정 묻고 싶다. 우리집 마당에 담배꽂초와 가래침, 껌을 땅바닥에 버리며,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가? 또한 이번에 생긴 스타센터도 예를 들 수가 있다. 책상에 낙서는 물론, 분리수거 역시 되지 않는다. 자유열람실을 오픈하기 전 도서관 남자 화장실 2층과 4월 중, 3층 남자 화장실(미디어 빨리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다름아닌 담배꽂초 였다. 도서관 학술정보은

작년에 우리대학에 입학 했을 때와 달리 새로운 건물과 주변환경 등 캠퍼스가 많이 발전되었다. 최첨단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물인 스타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학교 외형에 많은 투자를 했다.

자유관과 진리관 사이의 길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회관은 주차장이었다.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위험했다. 지금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모양을 갖춘 원형인도인 보도블럭이 생겼다. 또한 평화관 쪽에 있는 길 역시 거친 나무들과 풀들로 이루어진 도로였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벤치가 있는 공원이 생겼다.

학교 내 캠퍼스가 아름답게 변화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대학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 그것은 강의실에 있는 더러운 책상과 의자이다. 단대학별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분들이 있기에 다시 책상과 의자가 깨끗해지는지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이다. 오다희(부동산학 2) 학우는 "자유관 출입구 주변 땅바닥에 담배꽂초와 가래침과 껌이 널려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담배꽂초와 가래침, 껌을 땅바닥에 버리고 분리수거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실종된 공공질서 의식, 프악! 쓰레기 분리수거, 금연 등 ...

영 백명숙 실장은 "원래 도서관 내에는 금연구역인데, 담뱃불을 끄지 않고버려 복도에까지 연기가 스며 나올 정도로 화재가 발생했다. 담담직원이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 화재가 일어났을 것이다. 지어진지 얼마 안된 스타센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행동에 많이 부끄러웠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고 공부하는 지식인이며 문화인이다. 때문에 지식만 쌓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부터 지키는 내면적으로 건강한 대학 청년이 되었으면 한다. 책상과 의자 등 학

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내물건처럼 아껴 쓰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꽂초와 껌은 휴지통에 버리는 행동은 아주 기본적인 예절이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의식주'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人)이 빠져있다는 것을 느낀다. 기자는 중요한 인간적 가치가 없는 '의식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식주에 사람(人)이 들어가면 '주인의식'이 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길 바라기보다 공공질서와 공동도덕을 나부터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희망 기자

■ 문화산책 · 책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금주의 문화 산책은 한상복의 '배려'이다. '배려'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성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친다. 삶의 목표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배려를 제시한다. 결국 타인에게 행한 선행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성공으로 직결된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존폐위기에 놓인 한 영업부서를 무대로 조직을 경쟁의 무대로 보는 사람들, 장기적인 통찰 없이 순간의 보상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동료와 조직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으로 푹푹 뭉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소한 '배려'가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하고 기대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준다.

사실, 세상일이란 알고 보면 간단하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하라.' 거나 '평소에 인정을 베풀면 훗날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는 이야기는 굳이 책이 아니어도 이미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삶의 지향이 되는 말들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웬지 꺾려온 사람이 왜 없겠는가? 축구경기 하듯 레드카드 한 장 던져주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인생의 태클들이 왜 없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거의 '도인'의 경지에 오른 듯한 '인도자'나 '공자왕'이라는 등장인물들처럼 스스로 비워내고 기다리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는 것 또한 인생인 것 같다.

"이렇게 성공하라, 저렇게 남보다 앞서가라"는 수많은 부추김들로 가득찬 자기 계발서들 중에서 '혼자' 튀지 말고 '어울려 빛나라'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가족이건, 친구이건, 동료이건 잘 어울려 돌아가는 곳에는 부대낌도 없고 짜증도 없다. 카네기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인 팀워크의 기본이야말로 이런 '배려'의 바탕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배려는 자신에게 솔직해 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입장만 바꾸어 생각하기만 해도 배려가 무엇인지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는 결과와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개선해나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따뜻한 인간애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자신을 낮추고 타인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배려에 대해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책에서 알 수 있다.

/박지은 수습기자



2011년 육군

대학 軍 장학생 모집



스타센터 2층 02-550-7344
042-550-7344
1588-6953(육군모집)

지원자격

- 연령: 입원일 기준인 20~27세 남성
- 학력: 4년제 대학 학군입학이 되어있는 1, 2, 3학년
- 신체조건: 병역의 의무와 재능보은보험 가입 가능권자

지원서류

- 인사청탁서(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처: 육군 인사사령부

모집기간 : 2011. 5. 2 ~ 7. 8

선발절차

- 1차: 필기시험, 서류면담
- 2차: 화형: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ROTC: 6년 4개월
- 학사참모: 7년

대우 및 특전

- 대학기 장학금 지급
- 의무복무기간+장학금수혜 기간 추가 복무
- ROTC(의원사) 및 학사참모로 입관
- 국내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득요율 기회 부여 (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육군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02-550-7344, 042-550-7344
- 육군 1588-6953(육군모집)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1588-6953

교수칼럼



홍재영 교수
(중등특수교육과)

5월이다. 캠퍼스는 일년 중 가장 눈이 즐거운 풍경을 펼쳐낸다. 풍요로운 5월에 지나간 4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난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해 검색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가 만들어낸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안내, 또 장애인과 관련된 훈훈하거나 혹은 씁쓸한 기사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몇 년 전 시애틀에 다녀 온 적이 있다. 그곳은 요즘 대학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별다방(?)의 본점이 있는 곳으로 거리는 커피도시의 명성답게 유명한 커피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공기 중에 다양한

5월의 햇살을 함께 나누는 몇 가지 방법

로 함유된 카페인 때문인지 하루 종일 도시를 헤매고 다녀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유독 자주 발견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처음에는 단순히 '장애인의 인구비례가 높은 도시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곧 직업적 감각을 발동시켜 살펴보니 아무래도 인구비례는 아니었다. 턱이 거의 없는 보도, 휠체어의 탑승을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버스의 승객들,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리의 자원봉사자들. 시애틀의 장애를 지원하는 인적, 물적 토대는 이들을 집으로부터 카페로 불러내어 태평양의 햇살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불과 몇 년전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이래로 '장애인의 날'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 지정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다분히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대학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A대학은 대학 교정의 갈림길마다 리모컨만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했다. 이 리모컨은 시각장애인에게 온전한 캠퍼스 산책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몇 년전 다녀온 시애틀에 비견할 만한 발전이다. 종횡무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렇다면 시애틀 시민들이 장애인과 함께 태평양의 햇살을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애인들과 대한민국의 5월의 햇살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물적 토대는 변화, 발전하였으나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장애인들과 햇살 가득한 거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작은 지면을 그 이유를 밝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장애인'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연상되는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는 대답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누구든지 쉽게 떠올리는 이 단어들의 태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사실 내가 아닌 타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의 고통에 대해 고민하기엔 지금의 청춘은 너무나 불안하고 아프고 고달프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며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다 보면 그 속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는 까칠함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햇살보다 따뜻한 감수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 127:3-5) 라며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와 상급임을 이야기 하면서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13)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의 교육을 하라 말씀하신다.

성년으로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잠언 23:20).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언 23:17-8)고 말씀하신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말씀하신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언 23:22)'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부부사이에 대해서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 7:3)'라며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며 의무와 책무를 서로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다. 그리하면 복에 복을 더 하여 주신다고 하신다.

스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고전 4장:15)'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다시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원칙과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종종 매사에 원칙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모든 일이 원칙에 충실하면 모두가 행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이 원칙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불행한 것이다. 원칙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함으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라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원칙을 강조하거나, 옳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그 원칙의 노예가 되며 이로 인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원칙에 우리 인간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약 4:11)' 라는 말씀처럼 형제를 비방하기 위한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의 아집과 독선이 될 것이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면 모든 원칙은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결국 그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진정한 진리는 사랑에 근거한 원칙일 것이다.

미니인터뷰



정직원에서 3년만에 매니저로 승진한 "이대일" 동문

"호텔경영의 거물을 꿈꾸며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는 그날까지!!"

이대일 동문(사진)은 호텔경영학과가 새로 생겼을 때 입학한 02학번이며, 2008년 1월에 'Conred hotel bell basic'에서 인턴십으로 6개월 간 근무한 뒤 바로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다. 여러 인사과장에게 성실히 일하고 항상 웃는 직원으로 여겨 3년 만에 assistant 매니저로 승진한 이대일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 본사에서 하는 일과 매니저의 역할 관계성이 있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Conred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 도와주거나, 손님들의 이메일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진행되는 프로모션 브리핑을 하는데 즉, 직원들에게 VIP 손님과 이슈 및 회의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또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한다. 그리고 우리 호텔에서는 손님들을 우선시하고 있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끌어안자'라는 목표로 일하고 있다.

-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나 시련과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나?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다. 또

한 가장 힘든 일이 가족을 보지 못하는 점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일이 많아 한국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 통신이 발달되어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주고 받는다. 또한 휴가가 1년에 15일~20일정도 3번 있는데 그 때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며 재충전해서 가는 계기가 된다.

-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가족. 내 주변에 항상 있는 존재이고, 가까이 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와서 일을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안좋은 일이 생겨서 힘들 때 가족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이유 없이 든든함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꼭 참고 일을 하며, 가족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좌우명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간에 항상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꼭 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다.

- 호텔경영을 하는 사람의 자부심이란?

내가 일하는 힐튼 호텔은 전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과 서비스가 많다. 예를 들면, 휴가 때 홍콩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다. 그 나라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묵으면 싱가포르 힐튼 호텔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싼 값에 다른 손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직원으로서 다른 나

라의 힐튼 호텔과 싱가포르에 있는 힐튼 호텔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 배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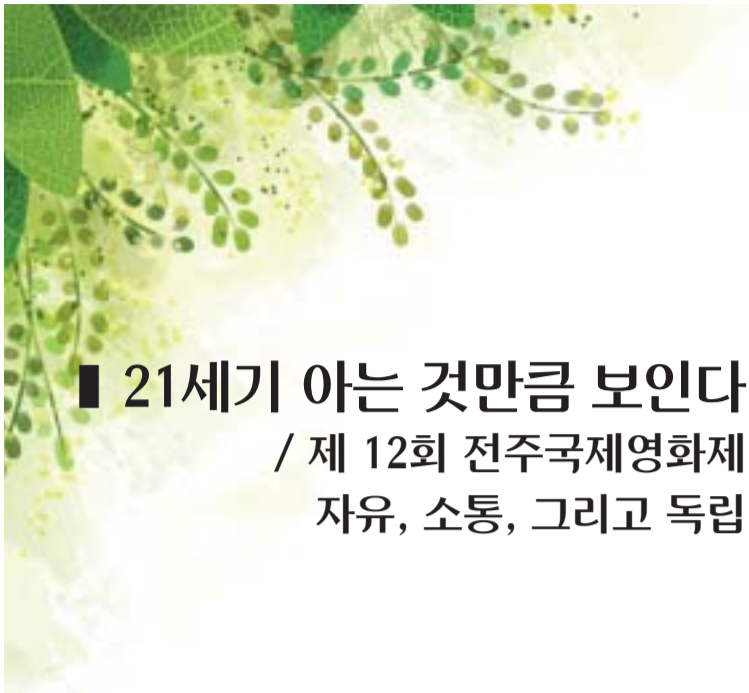
- 보람있었던 일이나 특별한 에피소드는?

내가 배워서 아는 업무의 지식으로 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만족시켜주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님들 상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매니저가 하고 매니저가 해결하지 못하면 총지배인이 나서서 단계별로 일을 해결한다. 하지만 매니저인 내가 총지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배운 한도 내에서 일을 해결할 때가 보람차다. 물론, 일을 해결하지 못해 총지배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때에는 내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

- 앞으로의 계획과 호텔경영학과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말?

호텔은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 전주대학교 이름도 알리고 후배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호텔경영이 업무가 많고 힘들지만 발전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후배들이 평소 영어공부를 준비하고 현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파이팅!!

/권희명, 김광룡 기자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 제 12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유, 소통, 그리고 독립



한승룡 교수 (영화평론가)

전주국제영화제의 개요

최근 인터넷을 달군 기사 중에 하나가 <트루맛쇼>다. 미국 영화 <트루먼쇼>를 패러디한 제목으로 TV에서 자주 보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조작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다. <트루맛쇼>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영화나 예술적인 영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소통, 독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영화들을 선별하여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 이름없는 영화 · 무명의 재능감독 발굴 세상에 알려



올해 총 38개국 190편(장편 131편, 단편 59편)이 초청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5월 6일 폐막식을 끝으로 9일간의 영화제 여정을 마무리했다.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기간인 주말에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관객참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으나, 주말 평균 점유율 90퍼센트를 기록하며, 짧은 기간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지훈프로그램머는 이러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해외 영화전문가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출판부에서 <영화제 연감>의 제3권 <영화제 연감:영화제와 동아시아>를 출간했는데, 이 책의 표지 사진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실 내 경험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 밖에 없지만, 매우 복합적인 영화제이며, 제작, 배급, 전시까지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영화제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주의 이런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 예산으로 최대의 문화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 초청 게스트의 관심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년 영화제에 참석할 게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각 섹션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감독들과 접촉하는데, 보통은 그 중 50% 정도만이 영화제를 찾는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90%가 전주를 찾았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거리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화의 거리다. 다른 영화제에서 볼 수 없는 전주의 특징적인 극장거리가 바로 객사 옆 영화의 거리다. 지금은 메가박스, CGV 등이 자리하고 있지만, 영화제가 처음 생긴 1999년, 제1회 영화제 때는 피카디리극장, 코리아극장, 뉴코리아극장, 대한극장 등이 있었다. 세계 많은 영화제들이 "쇼핑몰" 영화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쇼핑몰에 뒷 층에 자리잡은 멀티플렉스에서 영화제가 진행된다. 실생활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날씨에 상

관없이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의 장점도 있지만, 영화제를 모를지기 예술축제 아닌가. 사람들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를 둘러다니기도 하고, 영화이외의 다양한 음악가 공연 등 다양한 일상을 벗어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의 거리의 다른 영화제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

영화제의 초기 슬로건은 '대안, 디지털, 독립'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자유, 소통, 독립'으로 슬로건을 수정했다. 일반 대중들에게 '대안 영화'라는 것 자체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렵다는 인식을 주었고, 마니아들만을 위한 영화제라는 이미지로 전주 시민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이어졌다. '자유, 소통, 독립'으로 슬로건을 바꾼 지금은 폭 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한 '영화공전' 섹션, 따뜻한 봄 밤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 섹션을 통해 30편 정도는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며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

특히 올해 '소통하는 영화제! 스마트한 영화제'를 표방한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관객과의 대화(GV) 확대와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 신설로 관객과의 소통에 더욱 중점을 뒀다. 필름 대 관객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행사도 늘렸다. 브로콜리너마저, 한희정, 소규모야카시아밴드 등의 가수들의 거리 및 무대 공연 외에도 올해 새롭게 시작한 상영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좁은 틀을 깨고 야외에서 감독과 출연 배우, 영화 평론가 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프 스크린의 자리를 마련했다. 관객과의 대화가 144회 진행되었고, 작년 98회 대비 47%가 증가한 것이다.

전주 국제 영화제 프로그램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여는 국제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도 '국제경쟁', '한국장편경쟁' 그리고 '한국단편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영화제가 지지하는 감독들의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영화를 기획, 제작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 감독을 선정하여 세 편의 디지털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인 "디지털 삼인삼색"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재능 있는 세 명의 젊은 감독을 대상으로 세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쑈! 쑈! 쑈!"이다.

"디지털 삼인삼색"에 대해 2009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 레이몽 벨루는 "영화제가 영화 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는가? 전주 국제영화제는 기존 영화제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평가했다. 올해에도 장-마리 스트라우브, 클레어 드니, 호세 루이스 게린 등 세 유명감독이 참여했다. 올해 민병록 집행위원장님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로카르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만났는데, 디지털 삼인삼색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데 주지 말고 꼭 로카르노에서 영화를 틀 수 있게 해 달라.' 이야기 했다고 한다.

올해 "쑈! 쑈! 쑈!" 프로그램은 공효진, 신민아가 출연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2008) 등의 작품을 만든 부지영 감독과 <풍파리>(2008)로 국내외의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양익준 감독이 합류한 옴니버스 영화 <애정만세>로 두 편의 중단편 영화를 묶어 하나의 장편 영화로 제작하였다.

경쟁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영화미학을 제시한 시네아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회고전 및 각종 특별프로그램들도 주목할 만 했다. 특히, 올해 한국과 포르투갈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포르투갈 특별전을 마련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포르투갈의 루이 시몽이스 감독과 중앙 보텔로 감독이 방한하여, 영화 강국 포르투갈을 소개했다.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루이 시몽이스감독은 최근 근황에 대해 "며칠 전 아프리카에서 젊은 감독을 만나 그의 첫 장편 영화 제작을 맡았고, 2주전 여성 감독의 첫 장편 영화를 만들어 완성했다. 또 한달 전 1작품을 끝냈고, 올해 말까지 다른 감독의 프로젝트 3개, 나의 프로젝트 3개씩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젊은 감독을 능가하는 왕성한 창작욕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디지털 분야에서 늘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찾던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제1회 JIFF 폰 필름 페스티벌을 주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만든 5분짜리 영화가 120편이나 출품되었다. 그 중에 본선 10편이 상연되었고, 이은정감독의 <T-ensio-N>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은정감독의 <T-ensio-N>의 남자주인공은 필자가 연출했던 제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오프로드>의 남자주인공이다. <오프로드>가 2007년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여배우 선우선과 더불어 전주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스마트폰 영화로 다시 영화제를 찾게 되어서 영화의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는데, 올해 간느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분 대상을 받은 박찬경,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장>도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올해부터 한국 장편 경쟁 수상작을 폐막작으로 상영하기로 했는데, 박찬경 감독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이 선정되었다. 4년 전 개막작 <오프로드> 배우가 아이폰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주를 다시 찾았고, 아이폰 영화를 만들었던 박찬경감독의 작품이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인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결론

개막식 레드 카펫 행사장에 가득한 많은 스타 배우들이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영화들을 포함하거나,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의 숫자 로만 영화제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던 영화들이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무명의 재능있는 감독을 알아보고 주목해서 세상에 이들을 알리는 것이 영화제의 주요 역할이다. 2011년 개막작 <씨민과 나데르, 별거>의 아사르 파르히디 감독은 이미 2007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불꽃놀이>의 감독으로 소개가 되었고, <씨민과 나데르, 별거>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후 올해 베를린영화제 금곰상과 남녀주연상을 휩쓸며 작품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영화라는 격찬을 받게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1982년도 영문과 졸업 유광찬(전주교육대학) 총장을 만나다.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지난 2월 28일 제6대 전주교대 총장으로 취임한 “유광찬”동문을 5월 9일(월) 오후 2시 전주교대 총장실에서 만났다. 전주대학교 재학시절 대학총장이 되기위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키웠으며 그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장이 되기 위한 비전을 언제부터 꿈꾸었으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입학했을 때만해도 졸업 후 취업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학원에서 더 많은 학문과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교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교수가 되었을 때,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했다. 기회가 된다면 총장도 해보고 싶었다. 총장이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또한 인연을 중요시하고 평소 성실히 살아왔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총장님은 우리대학 동문입니다. 대학 재학시절과 현재의 전주대학교를 비교하신다면 ?

- 제가 당시 2년제 전주교육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이었던 전주대학교는 노송동에 있던 대학 캠퍼스를 현재 위치에 있는 효자동으로 막 옮기는 시절이었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본부 건물과 문.이과대학, 그리고 경상대학 등 몇몇 대학 건물만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효자동은 전주와 이서의 중간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야간수업

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캠퍼스 주위는 완전히 진흙탕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주대학교는 전주 신시가지를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현 이남식총장의 취임이래 비약적인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사학명문으로 발돋움 했다. 2009년도에 개관한 스타타워와 최근에 개관한 스타센터는 전주대학교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초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좋은 교육시설과 여건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전주대학교 재학생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교수들의 교육역량과 학문적 배경도 내가 대학다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야간에 대학에 다니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요...

- 초등학교에서 하루종일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밤까지 수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 수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대학 공부와 과제를 빠짐없이 하였다. 교사인 내가 야간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나의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 졌다. 어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나는 힘과 용기를 얻어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의 고생과 노력은 후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밑거름을 굳게 믿고 앞만 바라보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며 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면 한다.

★대학시절에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생활 하셨나?

- 10년간 대학 강사활동을 통해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대학 강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학등록금이 비싸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대학등록금이 비싸 '시 교육장'을 찾아가 개인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주십시오"라며 학문에 대한 열의를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된다. "뒤돌아 보지 않는 삶"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유광찬 총장의 교육관에 대해 듣고 싶다.

-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도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만큼'의 철학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OO구나", "OO겠지", "감사"라는 어구를 넣어 말하는 습관

을 강조한다. '불행'의 씨앗은 비교에서 온다.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만큼'의 철학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잃어버려야 한다. 대게 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면 기쁘지만, 주는 것을 잃어버리면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학우들을 비롯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후회가 없다. 또한 비전을 크게 갖는 것이다. 현재의 자기 노력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꿈을 줄이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더 키워 나가면 된다. 즉, 자기 스스로 이뤄나가는 성취감이 있어야 한다. 성공의 비결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은 순간의 정서며 가까이 있다. 조그만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 전주교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꿈을 이루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복지 대학', '아름다운대학'의 4대 비전을 선포 하셨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이 4대 비전을 성취하시어 길이 기억되시는 총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동문들이 함께 격려하며 동참해준다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도 이남식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환황해권 10위권 대학의 비전을 성취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학협력단〉

미래 대학의 길은 산학협력단에 있다.



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은 지역혁신을 선도하여 지식기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학문의 실용적 가치를 높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실용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관은 산학연구지원실과 산학협력지원실로 이루어져 있다.

산학연구지원실(실장 이동을)은 전반적인 산학협력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책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등 외부자금유치 추진 업무와 교외연구비 및 교내연구비 관리, 업적관리, 6개의 종합연구소와 7개의 특화연구소 관리, 외부위탁교육사업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등 교내외 연구와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기업중증약추장,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전북 경제교육센터, 우리대학 출판부 등 사업단 및 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산학협력지원실(실장 김형규)은 외부자금 유치를 통해 수주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부서로서 현재는 전북 유일의 산학협력중심대학(HUNIC)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스마트공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2003년 9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2004년 NURI 사업(전통문화콘텐츠 X-edu사업) 선정(대형)을 시초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HUNIC) 전북 유일 선정, 2008년 진안군야토피사업 연구 용역 선정, 제3기 학교기업지원사업 전주대학교 공중약고추장 선정,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선정, 2009년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HUNIC) 전북 유일 선정, 2010년 고전번역 거점연구소 선정(호남권중형유일), 광역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선정(전북유일), 한식조리 특성화대학 사업(전국 2곳), 2011년 3월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위탁운영사업선정 등의 40여건의 대형프로젝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년 연속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A"등급을 확정 받아 명실상부한 산학협력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슬로건 아래 전북도내 시, 군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대학 교수님들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함으로써 학문의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인 전북지역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동희 단장은 "21세기 대학 경쟁력은 산학협력에 있다."며 Global University의 실현은 실용성 있는 산학협력으로 봉사, 변화, 제패, 성실, 신속의 Idealism을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원모두 항상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유정, 박지은 기자

CCC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CCC 기독교 동아리는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추수할 것 많은 이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있다.

전도, 육성, 파송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헌혈 캠페인과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단대별 학생들이 모여 가족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동역을 이어나간다.

회장 최정기(수학교육학 3)은 "CCC를 통해 타 캠퍼스의 친구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고, 대학생 때의 그 짜릿하고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인격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다"라고 말했다.

/이대중 기자

- 위치: 학생회관 424호
- 연락처: 최정기 회장 010-3070-7183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Q. 성년의 날을 맞아 나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앞으로의 계획은??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자기 계발을 해서 세계적인 셰프가 되고 싶다. 차정아(한식조리학 2)
- 내가 살아왔던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익명(경영학 2)
- 좀더 성숙한 자세로 좀더 성숙한 행동을 하는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임해나(산 업디자인전공 2)
-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해보기. 김민지(사회복지학 2)
- 전공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우고 나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에 후회없는 대학생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다은(간호학 2)

-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 내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들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익명(환경보건학 2)

- 벌써 내가 21년이나 살았더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앞으로 젊음을 앞세워 두려워하 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다. 안은미(사회복지학 2)

- 대학생이 되어 성인이라 생각했지만, 성년의 날을 맞아 정말 어른처럼 느껴진 것 같다.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자기 계발을 할 것이다. 익명(한문교육 2)

익명(한문교육 2)

※ 기타의견

-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것이다. 김태정(상담학 2)

- 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할 것이다.

최은정(사회복지학 2)

- 학점관리 잘하고, 나의 앞날 즉, 취업을 생각해봐야겠다. 익명(수학교육 2)

-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싶다. 홍하영(역사콘텐츠학 2)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스도쿠 풀어보기

776호

7		5				9
	4		8	6		3
		1		9	8	2
			5	1		
5	1					2 6
	9	3		1		8
4		5		7	2	
				8	5	6
1	3			6		5

★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655-8030)

775호 정답

5	1	2	9	4	8	6	3	7
7	3	8	5	6	2	9	1	4
4	9	6	1	3	7	5	2	8
1	6	7	4	9	3	2	8	5
2	4	3	7	8	5	1	6	9
8	5	9	6	2	1	4	7	3
3	8	4	2	1	9	7	5	6
6	2	5	8	7	4	3	9	1
9	7	1	3	5	6	8	4	2

★ 775호 당첨자 ★

- 김민지 (사회복지학 2) 차정아 (한식조리학 2)
- 김형준 (정보통신공학 4) 노세련 (상담학 2)
- 오현주 (부동산학 2) 박장한 (기계자동차학 2)



로고스

빈 잔을 채우는 말씀 - 귀히 쓰는 그릇



이병순 교수
(대체의학대학
건강관리전공)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혼신을 다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다. 출연하자마자 ‘나만 가수다’, ‘왕의 귀환’이라고 까지 하는 입재범은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청중평가단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폭풍과 같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주 남진의 ‘빈

잔’을 리메이크한 그의 노래와 무대 퍼포먼스, 그가 지닌 사연들이 ‘그대여 나머지 설움을 나의 빈 잔에 채워주소’라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빈 잔’을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면서 살고 있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아닐까?

오래 전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봉사했을 때 주일 공과시간에 학생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학생들에게 어느 그릇이 되고 싶은 지 물어보자마자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바로 답이 튀

어나왔다: “금 그릇!”. 누구나 귀히 쓰임 받는 금 그릇이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질그릇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지만 그 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을 하였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스펙을 쌓으려 이리저리 흔들릴 때 마다,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를 생각해 보자. 때때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꼭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계21:6)”을 받기 위하여 그저 깨끗한 그릇, 비워져 있는 그릇이면 될 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고”(수1:9), “나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사 58:11)”는 말씀을 나에게도 주셨음을 기억하자. 그날 그 말씀을 나누었던 나의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 비록 소박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니 귀한 금 그릇이 되어 귀한 쓰임을 받고 있으면 좋겠다.



겨자씨

어느 통계수치이다. ‘부부싸움 때문에 119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1,353건.’ 놀랄 일이다. 119구조대는 불났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가정문제, 특별히 부부싸움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출동한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이혼율, 깨어지는 가정은 결국 이런 부부싸움 때문이 아닌가.

▼ 모든 사람의 소망인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가정의 기둥이요,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부부는 생동감이 넘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 켈리 게이블이 사랑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이다. 행복한 부부들은 될 수 있는 한 즐거웠던 순간만을 기억한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긍정적으로 꾸려나간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행복감을 공유한다.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을 한껏 즐길 줄 아는 부부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긍정적 정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어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적극성(Positivity)’의 저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긍정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은 즐거움, 감사, 희망, 자긍심, 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 가운데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임을 강조한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보, 고마워!” 이 감사의 한 마디가 행복한 부부를 만든다.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넘쳐나게 한다.

▼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세상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가정은 본래 완전한 걸작품이었다. 그래서 가정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함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부부 사이를 깊이 돌아봐야 할 가정의 달 5월, 하늘이 푸르다. 아멘.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 5:13)



오성택 목사
(남전주성결교회,
공과대학전담목회자)

소금은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입니다. 인간의 몸이 신진대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입니다. 세계의 문명사를 바꾼 그 하얀 암석은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인간 세상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며, 더는 어쩔 수 없을 만큼 부패한 것들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결함에서 신선함의 자리로,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불통(不通)에서 소통(疏通)의 자리로 소생시키는 소금기(saltiness)의 개결(介潔)함.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패가르기가 만연하고, 끝없는 증오가 번쩍거리며 삼천리를 활보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죽음을 보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다시 전쟁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왜 이래야 하느냐고 한탄해야 합니다.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나트륨(Na)과 염소(Cl)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 그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암석. 바로 소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각각 22개, 28개 구절에서 사용되는 빛

과 소금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소금은 음식물의 양념(요 6:6)으로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맛을 내고 맛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소금은 영속성과 불변성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레 2:13, 겔 43:24) 하나님은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그 약속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영원히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소금언약’(민 18:19)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주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왕하 2:19~22) 재미있는 사실은 소금이 신생아의 소독제(겔 16:4)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물을 맑게 하는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 권능(출 15:25)을 확신했기 때문에 독소가 있는 샘물에 소금을 던져 물 근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왕하 2:21)

바닷물은 자기 속의 덧 없는 것들을 햇살과 바람에 날려 보내고 긴 침묵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그러나 다시 자신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음식에 녹아 들어가 감칠맛을 살리고 씹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의 구실은 맛을 드러내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맛 없는 세상에 맛을 돋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면에서 맛을 상실했습니다. 세상도 맛이 없고 소금도 맛을 잃었습니다.

교회사를 조명해 보면 맛있는 소금들이 처참하게 지밧혔던 역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지밧인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들이여 맛을 지키자. 녹아 없어져도 소금으로 녹아지자.



제 1회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축제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와 전북CBS가 공동주최한 제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축제 시상식이 2011.5.14(토) 본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있었다. 시상식은 김

문택 교수의 사회로 고정수 선교지원 실장의 기도, 김승수 목사의 설교, 장선철 선교지원처장의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48개팀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

보컬과 기타, 드럼, 앙상블, 워십댄스 등 예배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출전해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대 상** : 해당자 없음
- ▶ **최우수** : 김수열(전주신흥고2), 문수희 외 2명, 양여린(군산영광여고3)
- ▶ **금 상** : 박미소(성심여고3), 정진관(중경고2), 김재림(장수고2) 외 1명, 이유래(전주기전여고3) 외 7명
- ▶ **은 상** : 정찬송(완도수산고2), 이화빈(전주영생고3), 안승주(송곡고2) 외 6명, 김단비(중앙중2) 외 3명
- ▶ **장려상** : 임하은(유일여고2) 외 9명
- ▶ **기쁨상** : 서지현(장유고3) 외 4명
- ▶ **창작상** : 이상민(전주신흥고3)



스타센터 개관 기념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

스타센터 개관을 기념하여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극동방송과 공동 주최로 지난 3일 본교 JJ아트홀에서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콘서

트는 전주대 재학생들과 전주시 내 크리스천 고등학생을 비롯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사역자인 소리엘 장혁재 전도사와 극동방송 김혜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배와찬양 학

과 학생들, 찬양사역자 지역 전도사, 천관웅 목사 등이 특별 찬양한 이 콘서트는 극동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제 26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가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500여명의 전국 대학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예술관에서 찬양과 주제 강연, 특강 등으로 꾸며진다. 대회는 첫날인 30일 오후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목사의 개회 예배로 박수웅 장로의 특강, 서

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은혜의 시간 설교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에는 이남식 총장과 조정민 목사(CGN TV 대표이사) 그리고 하신주 선교사의 특강과 장선철 손교지원 처장인 전주대 선교사역 발표 등 선교사역 사례발표 시간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김윤희 교수(횡블트리니티대학)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열려 : 봄바람이 부는 상큼한 우리방..

학생생활관은 19일(목) 오픈 하우스 행사와 함께 각 생활관 1층 로비에 BCR 콘테스트 실시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관실을 선정하여 전시한다. 이를 통해 관생간의 상호 친목 도모 및 생활관 환경 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각종 상품 증정 및 상점 부여로 관생들

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제4회 BCR 콘테스트는 ‘춘풍실’과 ‘톡톡톡’이라는 두 가지 테마에 적합한 호실을 선정하였으며, 1차 직원 선발, 2차 관생 공개 투표로 선정의 공정성과 관내 청결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오는 19일 오픈하우스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

2천 여 영호남 교회지도자 참석

2011년 6월 9일 희망홀에서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열린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 영호남 지역의 2000여명의 목회자들은 한마음으로 성시화를 위해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후에는 김항식 국무총리, 전용태 세계성시화 총재, 이남식 총장, 전북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한마음대회와 새만금지역 투어를 통하여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 두:드림(do:dream)

‘우리 집에 놀러와’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19일(목) 노천극장 및 각 생활관 일원에서 새로운 생활관 문화를 형성하고, 관생 개개인이 모두 진정한 Super Star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사진콘테스트, 도서나눔 캠페인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

며, 행사 당일에는 각 생활관 1층에서 각종 편의시설 및 1,2,4인실 안내, 게스트룸까지 모든 생활관 시설들이 갤러리 형태로 전시되었으며, 네일아트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단체 퀴즈, 생활관 가요제, 푸드파이터,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가슴으로 외쳐 등도 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대학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지난 15일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교와 하나됨을 위한 ‘전교인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교내 축구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중국

유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100여명의 성도가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대학교회는 사랑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5. 09(월) 순창교육청 - 05. 15(일) 순천 한마음교회 주일예배, 찬양예배
- 05. 16(월) 익산교육청 상담부장 연수회, 도교육청 아버지 교실
- 05. 18(수) 정읍 중앙교회 - 05. 19(금) 정읍 정주고등학교 부모교육

| 김승수 목사 설교

- 05. 15(일) 전주 온누리교회 - 05. 16(월) 군산 선교단체 연합집회

《대학교회 예배시간》

■새벽예배	월~금 06:00	■주일낮예배	주일 11:00
■대학청년부	주일 13:30	■수요일예배	수요일 19:00

Star中心开馆纪念

- 大型图案拼纸表演



Star中心传达着我校创意为先, 指向未来的理念

总学生会(会长 朴钟/经营大学)于4月27日下午4点,在Star中心广场设计了以“我们是一家人”为主题的大型图案拼纸表演。

为庆祝Star中心开馆,代表我校全体师生的600余名教职员和学生参加了此次开馆纪念仪式并进行了空标纸表演,通过相互间的协作展现了我校师生团结协作的精神面貌。

寓意Star中心形象的‘STA R’字样拼纸表演结束后,师生们推出了‘LH’字样的标志,意在声援成为全北地区最大规模的LH破产重组案。本次活动的影像资料经过编辑后在全州市新闻中播放并已上传到YouTube网站。

朴钟总学生会长表示,“首先,我代表大韩民国总学生会真诚得祝贺Star中心开馆,Star中心

的落成,成为我校广大同学为母校引以为豪的标志性建筑。同时,总学生会代表我校全体同学及教职员工拼纸表演的形式在LH破产重组案上表达了与全体国民一同捍卫权益的意愿”。

/朴善花 记者

外食产业学科

被选定为湖南圈唯一的‘真品味事业实习基地’

-2年间将获10亿支援-

咖啡,红酒,食品经营特性化

外食产业学科(学科长 民继 后,为外食产业学科争取到了难得的发展机遇。

民继鸿教授指出,“在此之前,外食产业学科以扩大外食服务市场,创造新的工作岗位”为目标,重点强化了对咖啡师,调酒师,糕点师的教育培训力度。此次被选定为事业实习基地,希望我们能够借助支援,抓住机遇,培养更多的兼备现场实务能力和创新能力,研究能力的高素质优秀外食人才。

‘真品味事业实习基地’开展对咖啡师,调酒师,糕点师,婚礼策划师,时尚设计师等的教育培训项目。在首都圈,忠清圈,湖南圈,岭南圈等地区各选定一所在实习空间和人力资源等领域具有明显优势的大学进行支援。我校与全州印象大学以统一财团身份参与竞选并最终成功入选,从而获得支

/权希望 记者

观光经营系

国内文化资源实地考察

-培养观光实务能力和实地情报收集能力的体验活动-

观光经营系(主任教授 柳仁平)4年级同学为搜集全国观光地的实地信息,于上月28日至30日,在庆尚南道一带进行了为期3天的国内文化资源实地考察。

观光经营系为培养学生的观光实务能力和实地情报收集能力,每学期都开展实地考察活动。实地考察作为观光经营系教育目标的一部分,旨在培养社会各单位,企业紧缺的具备实务能力的人才。此次考察活动主要以庆尚南道地区的合川,真州,南海,顺城,通管,巨济等文化观光资源为对象,学会会长金淑贤

(4)在被采访时说到,“每次去观光地考察都能感受到变化,心想这是否就是我曾经来过的地方。这一次实地考察也一样,对观光地可能发生的变化有强烈的期待。分组活动中,组员间就观光地的信息相互交流,未知的部分相互补充”。

柳仁平教授指出,此次实地考察活动,不仅仅是单纯的实用性实习教育,更应该通过团体活动创造一个培养学生协同心和团结力,指导力,表现力以及对本学科的自豪感的良机。

/权希望 记者



观光经营系在庆尚南道地区的合川,真州,南海,顺城,通管,巨济等地进行实地探访

感 悟

黎明时刻,很想家

虽然开学到现在才两个半月而已,并且去年双节一起放假自己都没回家,何况现在?原以为我已经习惯了这种独在异乡的感觉,谁料在这个静悄悄的黎明,对家人的思念就更加浓烈了。

爸妈都还在睡梦中吧?希望天使把女儿最美好的祝愿寄托在他们

甜美的梦中,让他们天天有个好睡眠!

很久没有听到雨水的呼唤了,我开始害怕没有雨的日子,寒风里的,风吹起残叶如同破碎的流年,而蕴藏在心底深处的温暖,开始慢慢消散,成为黑夜中那一年冬季角落的洋香,疼痛感告诉我封闭的内心还是需要一个理由去打开,惆怅的树影,长长短短,都是我长长短短的心情,安静的雨水,在世间的风雨中,纯净的让人心痛,让人牵挂,也是因为距离吧,连接着家乡与学校的距离,可以连接着两地的,只有我的心,我承认,在这样的时刻我想家了,这是一个诚实的借口,我悄然离开这条路,请原谅我不说一句话,而在最深处的黑夜中,背着路灯默默将思念收藏在心底。

很怀念一家人说说笑笑的那一段童年时光,为何美好的东西都如此短暂呢?如今,我们长大了,意味着要为生活而踏入社会了,从而

也就自然而然地一家人离多聚少,电话中老爸说哥比以前白胖了些,我听了出奇地兴奋:终于不用担心他被风吹走了!再看看自己,也不再是以前那个胖得可爱,而且老是遮遮掩掩都找不到一件合身衣服的女孩了,然而,遗憾的是,世界上也因此深灭了一个可能杰出的服装设计师!现在走在街上,随手拿一件衣服都不再有穿不下的担忧了,立志成为一名杰出服装设计师的念头也随之而消逝了。

这是一个多么残忍的轮回,去年,今年,明年,我们每个人都走过了一个又一个这样的轮回,想家总是幸福的事情,既然身在异乡,肯定有它的意义,天亮了,就各司其职!

(张平 心理商谈大学院 2年级)

The 47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Jeonju University and the Ceremony for the Grand Opening of the Star Center

**Long-term Service of 44 Employees: Superstar Faculty and Staff Awards to 17 holders for 6 Days Off
Honorary Doctorate Conferment to Congressman Mong-joon Jeong and Bloomfield College President Dr. Richard A. Levao**



The JJU Student Council conducts a card display as a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the Star Center under the theme "We are the one, Jeonju University". In the photo: the huge card display depicts the Star Center in the form of a 'STAR'

presented to Super Star Faculty and Staff for exceptional service and university personnel were honored for their long-time service.

Congressman Mong-joon Jeong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Dr. Richard A. Levao, was honored with a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The Star Center is 34,592m² and stands as workmanship of a world-renowned architect, Aaron Tan, who has provided JJU with a "mini-campus on campus". The construction expenditures a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32 billion won and the building was under construction for almost four year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Nahm-sik Lee, from the time he was appointed in 2003, has invested in the remodel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building of the Star Tower Dormitory, and other improvements to the university campus, thereby involving himself in epoch-making innovation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Various programs were held all over campus and outside in commemoration of the 47th University Foundation Anniversary and the Grand Opening of the Star Center.

The ceremony of the Star Center Grand Opening was held in the "Multipurpose Hall" at 4 pm on May 3rd. Faculty from the Doxology Department opened the ceremony with a performance and a complimentary video exhibition, along with an opening speech by

President Nahm-sik Lee, words of encouragement from Chairman Yong-jo Ha, contractual ceremony with the Alumni Development Fund, a video presen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er of Star Center, Aaron Tan, and concluded with a tape-cutting ceremony. At the conclusion of the ceremony, participants were provided a tour around Star Center.

Also, in celebration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at 9:30AM in the "Multipurpose Hall", awards were

Conferment of Honorary Doctorates in Commemoration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Jeonju University: Congressman Mong-joon Jeong – Honorary Doct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of Bloomfield University, Dr. Richard A. Levao –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From left to right) Congressman Mong-joon Jeong, Bloomfield College President Dr. Richard A. Levao

At the ceremony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which was held at 11:00am on May 3rd in the "Onnuri Hall", Congressman Mong-joon Jeong (Chair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upreme Council)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Dr. Richard A. Levao,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Chairman Mong-joon Jeong was conferred the Honorary Doctorate for his active parliamentary efforts for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for taking an active rol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s, including health care services, "National Interests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projects, High-Tech industries,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education, for sports, diplomacy and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writing activities, and particularly,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through his substantial investments. Also, he is praised for his glorious achievements in the accompanying

growth of the East-West and Central regions of Korea. In addition, as a Christian, he continues to make great contributions to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including missionary work, blood donation campaign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Dr. Richard A. Levao worked as a lawyer and judge from 1999-2003. Since 2003, as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he has devotedly served at the Woodrow Wilson National Cooperation Foundation, the Mountainside Health Hospital Foundation, the National Independent Universities Association, the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olleges, and at Rutgers University, involving himself in various activities through the professional and public sector within fields of educational policy, election consulting and law.

Bible Devotion

The Resurrection and Its Grace

Brian Heldenbrand

John 20:19-22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Where do we see the importance of the resurrection in Scripture? All of the Letters of Paul are based upon the fact of the Resurrection. The 4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all of them end with the Resurrection Story. All of the sermons in the Book of Acts proclaim the Resurrection.

The early church understoo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 Lord filled them with His grace. Acts 4:33 says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This truth still holds true today. God is still in the business of sending His people out to proclaim His resurrection and the power which is available to all who call on the name of Jesus.

Believers in Jesus Christ, this history needs to repeat itself in two ways: One, God's grace needs to be upon His people. Two, His people need to continue to proclaim and stand up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God desires that all mankind come to know His Son. Shouldn't we? Truly, if we have been with Jesus, others should know it.

Interview with Honorary Doctorate Recipient, Dr. Richard A. Levao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from our university. Although much time wasn't available, the answers he provided to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allow us to better relate to and understand the man behind the honorary doctorate degree. Truly, Jeonju University honored an exceptional educator and administrative leader.

Q: What does it feel like to receive an honorary doctorate degree?

A: I feel great pride and honor in receiving this degree. This is my fourth honorary doctorate and I feel great honor to the community who has conferred it because it means we share the same values on higher education.

Q: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mfield College and Jeonju University?

A: Both schools have much to offer each other. Jeonju University is larger than Bloomfield College and its energy and history can stimulate the faculty and students of Bloomfield College to think globally in a context different from the European traditions. Korea

possesses a much different history and a political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Bloomfield College is able to offer Jeonju University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global city life of New York City. Also, Bloomfield College opens up the opportunity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to experience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its emphasis on individuality, creativity, and "ethos", providing students the opportunity to have fun with learning.

Q: What have you learned during the eight years as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A: There is no wasted learning, when applied properly. Everything I have studied during my life; Law, Italian Literature, etc. has all been helpful in doing my job. My portfolio defines me.

Q: What advice do you have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A: Recognize you can NEVER relive your college years. Don't defer prudent adventure (studying overseas).



제 1회 우수 리포트 공모전

2011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리포트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행사임

제 6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학생들이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감동이 있었던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소감을 에세이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행사임

제 3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제고를 위해 자유 주제로 25매
내외의 PPT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경연대회임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

www.jj.ac.kr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